

Yeosu Web Contents

2024년 04월 18일 00시 36분



목차

목차	2
보도자료 - 전체	3
여수시 이순신도서관 “지역의 아픈 역사...여순사건을 만나다”	3

보도자료

해명자료

여수시 이순신도서관 “지역의 아픈 역사…여순사건을 만나다”

2021.09.30 조회수 552 담당부서 시립도서관 담당자 김보은 연락처 061-659-2861

9월 29일부터 10월 29일까지 ‘여수·순천 10·19사건 자료 전시☒’ 개최
10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스탬프투어 진행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9월 독서의 달을 기념해 지역의 아픈 역사인 여순사건을 책과 그림으로 만날 수 있는 「여수·순천 10·19사건 자료 전시☒」을 열고 있다.

이번 전시전은 73년 만에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을 기념하며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우리 시 역사를 바로 알리고 여순사건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자 마련했다.

‘여수·순천 10·19사건 자료 전시☒’은 이순신도서관에서 9월 29일부터 10월 29일까지 열리며, 3층 일반자료실에서 여순사건 관련 소장도서 전시를, 1층 로비에서 그림 전시를 만나볼 수 있다.

여순사건 관련 소장도서는 1948, 칼 마이던스가 본 여순사건 및 논문집 등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저서가 많고, 그림 전시는 지역의 초·중·고등학생들로 구성된 종이네에나눔 회원들의 재능기부로 마련됐다.

10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이순신도서관 내 일부 장소에 여순사건을 기억할 수 있는 공간을 꾸며놓고 찾아가 보는 스탬프 투어 행사도 진행된다. 스탬프 투어 완료자에게는 3층 일반자료실에서 소정의 선물을 배부할 계획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너무 늦었지만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은 당연한 결과이며 이번 기회를 통해 시민을 비롯한 학생들이 여순사건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며 “지역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여수·순천 10·19사건 자료 전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수시이순신도서관(☎061-659-2861)으로 문의하면 된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전남 여수시 신월동에 주둔하고 있던 14연대 일부 군인들이 제주4.3사건 진압명령을 반대하며 촉발됐으며 당시 희생자만 1만여 명이 넘는 현대사의 비극적인 사건이다.

여수시는 여순사건의 발발지이자 가장 큰 피해지역으로, 조례 제정과 아울러 시민추진위원회 구성, 영화 제작, 홍보단 구성 등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위한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지난해 7월 28일 152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발의해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6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http://www.yeosu.go.kr>)



첨부파일

[전체\(Zip\)다운로드](#)

- 1. 여수시 이순신도서관 “지역의 아픈 역사...여순사건을 만나다”.jpg (309 hit/ 498.8 KB) [↓](#)
[미리보기](#)
- 1-1. 여수시 이순신도서관 “지역의 아픈 역사...여순사건을 만나다”.jpg (304 hit/ 394.0 KB) [↓](#)
[미리보기](#)
- 1-2. 여수시 이순신도서관 “지역의 아픈 역사...여순사건을 만나다”.jpg (303 hit/ 373.7 KB) [↓](#)
[미리보기](#)
- 1-3. 여수시 이순신도서관 “지역의 아픈 역사...여순사건을 만나다”.jpg (304 hit/ 534.4 KB) [↓](#)
[미리보기](#)
- 1-4. 여수시 이순신도서관 “지역의 아픈 역사...여순사건을 만나다”.jpg (296 hit/ 527.2 KB) [↓](#)

(<http://www.yeosu.go.kr>)

[미리보기](#)

목록

이전글

여수시 올촌1산단에 연 1만톤 2차전지 소재 추출...

다음글

여수시,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COPYRIGHT © YEOSU-CITY. ALL RIGHTS RESERVED.

Yeosu Web Contents

